

## 철도시설물(철도역, 옥외시설 등) 이용해 광고하세요!

- 광고효과 높일 수 있는 시설물 개량, 광고판 현대화 등 대책 마련 -

KR연구원(원장 이동렬)은 철도시설물을 활용한 광고수요를 높이기 위해 기존의 광고매체를 현대화하고 철도역사 내외부를 활용한 신규 광고매체를 발굴하는 '철도광고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 내년부터 철도시설물 광고 매체에 적용할 예정이다.

연구원은 일률적인 철도변 옥외 공간 외에도 많은 이용객이 이용하는 철도의 장점을 더욱 부각시키고 광고수요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동영상 매체, LED조명을 이용한 광고, 철도역사 내외부 시설물을 광고에 적합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했다. 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각 지방 특산물 및 주요관광지를 대표하는 철도역사를 선정해 역광장 특설매장 설치운영, 폴 싸인 광고 시행 등 타 교통기관 광고 매체와 차별화된 네트워크 철도광고 매체를 개발했다. 특히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연계해 원주~강릉 철도건설 사업 구간에는 국내의 광고를 원하는 기업과 함께 프로모션 추진 등 적극적인 방안도 모색 중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작년 기준으로 약 41억원의 철도광고 수익을 올렸지만 철도광고 매체의 신규 개발로 208억원 이상의 추가 광고수익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적극적인 부채감축과 경영개선을 국민에게 신뢰받는 철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진해선 (舊)산동건널목 위치에 '철도횡단 지하차도' 건설

- 창원역과 신창원역 사이, 왕복 2차로 규모로 2016년 말 완공 예정 -

영남본부(본부장 권영철)는 지역주민의 이동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 2008년 폐쇄된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 일원의 (舊)산동철도건널목 위치에 왕복 2차로 규모의 지하차도를 건설한다.

본부는 건널목 폐쇄 후 지역주민들의 이동불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창원시와 협의해 지난 '13년 10월 창원시와 지하차도 건설을 위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으며 창원시가 총 2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연장 약 60m (BOX-Type 19m, U-Type 41m), 왕복 2차로 규모로 공단이 지하차도 건설을 맡아 올해 10월 착공해 2016년 말 완공할 계획이다.

본부 관계자는 "지하차도 건설로 진해선 철도 건널목 폐쇄에 따른 지역단절과 지역주민의 이동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안전하게 건설해 주민들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영남본부, 철도유휴부지 민간활용 확대키로

- 경주시청에서 현장설명회 개최 -

영남본부(본부장 권영철)는 국유재산에 대한 민간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관내 철도 유휴부지 38개소를 대상으로 지난달 29일 경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임대사업자 공모를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제공되는 철도 유휴부지는 경주·포항권역 7개소, 부산·울산권역 11개소 등 총 38개소로 면적은 163천㎡이며 도심지역의 역주변이나 선로연변 등 활용가치가 높아 임대사업자는 농산물저장고, 적치장 및 주차시설 등의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

본부는 정부의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민간참여도를 한층 높이기 위해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 5월(창원·진주권), 7월(부산·울산권), 9월(대구·경산권) 개최해 총 10개소(140천㎡), 약 4억원의 신규수익 창출했다.

본부 관계자는 "금년도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국유재산 임대마케팅으로써 그 간의 추진실적과 개선사항을 보완해 대국민 철도 유휴부지 임대홍보 강화로 공간 재부진전성 개선 및 지자체와 협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 대한 세부사항은 영남본부 홈페이지(www.kr.or.kr/branch/yeongnam) 또는 재산부(☎051-664-5455, 5475, 5453)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설명회 개최 후 국유재산관리에 건전한 개선의견을 주신 분들을 선정해 소정의 상품권도 지급할 예정이다.

(단위 : ㎡, 백만원)

소재지	개소	필지	면적	사용료
경주/포항권	7개소	15필지	9,626	44
대구/경산권	12개소	23필지	3,957.1	70
부산/울산권	11개소	18필지, 터널 2식	14,631	291
창원/진주권	8개소	57필지, 터널 3식	134,825	105
합 계	38개소	113필지, 터널 5식	163,039.1	510

## 경전선 진주~광양

### 복선철도 마지막 터널(직전터널) 관통

- 공정을 75%, 2016년 상반기 개통 -



호남본부(본부장 이현정)는 영·호남을 연결하는 남해안 순환형 연결철도인 경전선 진주~광양 복선철도 건설구간의 마지막 터널인 직전터널(4,660m)을 지난달 28일 관통했다.

직전터널은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직전리 및 횡천면 여리리 일원의 지리산 지류구간을 통과하는 터널로 NATM공법을 적용했다.

NATM(New Austrian Tunnelling Method) : 터널에서 가장 일반적인 공법으로 천공 및 발파 후 숏크리트, 록볼트, 보조공법 등의 지보를 시행하며 굴착하는 공법

특히 터널상부에서 원지반까지의 두께가 20m이하인 저토포 구간과 퇴적층으로 형성된 역암의 파쇄대가 넓게 분포되어 있어 매우 열악한 지반조건에서도 특수 그라우팅 등의 보강공법을 적용해 단 한건의 안전사고 없이 관통했다.

본부는 지난 2010년 7월 터널공사를 착공해 현재까지 4년 2개월에 걸쳐 사업비 242억원, 연인원 2만5천여명, 덤프트럭 등 장비 1만1천여대 등의 인력과 장비를 투입했고 굴착된 토사량은 33만5천㎡으로 삼암동 월드컵축구장을 6m 높이로 채울 수 있는 규모라고 전했다.

본부 관계자는 "경전선 진주~광양 복선철도는 현재 75% 공정을 추진 중이며 금년 12월부터 궤도, 전력, 신호/통신 등 후속공사를 착수하여 종합시운전 등을 거쳐 2016년 상반기에 개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부선 위로 통과하는 고속철 교량에

### '신공법 적용'으로 안전 향상

- 열차운행 지장을 최소화해 열차 탑승객 안전 확보 -



충청본부(본부장 노병국)는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통과구간 건설사업 중 열차가 운행 중인 경부선 위를 통과(횡단) 구간 연장 100m)하는 경부고속철 교량(판암1교)에 '신공법'을 적용해 시공한다.

판암1교가 횡단하는 경부선 구간은 KTX 등 1일 310회 이상 열차가 운행 중인 노선으로 본부는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열차 탑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공법인 헤비 리프팅(Heavy Lifting) 가설공법을 개발했으며 판암1교 교량 시공에 적용했다고 전했다.

헤비 리프팅 공법은 지상에서 제작한 구조물(門型교각)을 들어 올린 후 옆으로 밀어 넣어 운행 중인 경부선 철도구간 상부 위에 문형(門型)교각을 거치하는 방식으로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공기도 단축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본부 관계자는 "신공법 적용을 통해 시공성과 열차운행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향후 해외철도 시장개척에 있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 태백선 철도건설로 발생한 폐선부지에

### 태양광발전시설 유치

- 지난달 27일 현장설명회 개최 -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본부장 김영하)는 태백선 제천~쌍용간 복선전철 건설로 발생한 제천시 구간의 철도폐선부지에 태양광발전 사업 유치를 위해 지난달 27일 내토중학교 건너편(주소 : 제천시 장락동 242-2번지)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임대하는 부지는 접근성이 좋고 일조량이 풍부해 태양광발전시설에 적합한 곳으로, 총면적 96,836㎡이며, 임대대 대한 세부내용은 전자자산처분시스템(http://www.onbid.c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태양광 사업자가 선정되면, 유휴 철도부지 사용료로 연간 약 2억원의 임대료 수익이 창출될 예정으로, 철도공단은 철도건설사업의 추진에 따라 발생한 부채감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철도공단 강원본부는 11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강원본부(☎033-810-5068)로 문의하면 된다고 전했다.

## 강원본부, 철도시설물 개량으로 안전 올린다!

- 내년 영동선, 태백선, 함백선에 예산 75억원 투입 -

강원본부(본부장 김영하)는 내년도 영동선, 태백선, 함백선 등 강원본부 관내 주요 철도시설물 개량을 위해 75억원을 투입한다.

본부는 노후된 철도시설물의 보수·보강과 수해 및 낙석우려구간에 낙석방지망 설치 등 3개 노선(영동선, 태백선, 함백선) 31개소에 대해 개량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올 12월에 설계용역이 준공되면 내년 3월에 공사를 조기 착수에 9월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본부는 올해도 영동선 문단~봉화간 하수설치공사 등 재해예방을 위해 21개소에 39억원의 예산을 조기 투입해 지난 10월 공사를 완료한 바 있다.

김 본부장은 "노후화돼 안전에 취약한 철도시설물을 지속적으로 개량해 국민들이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랑의 연탄으로 따뜻한 마음 전달

- 선로변 불우이웃에게 연탄 4만장 배달 -



경영지원실(실장 이계환)은 지난달 22일 본사에서 공단 임직원과 지역주민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 사랑의 연탄나눔' 재개식을 갖고 대전도심 선로주변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가정에서 쓸 사랑의 연탄 4만장을 전달했다.

이날 자원봉사에 참여한 공단 임직원 100여명은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탄 6천여장은 직접 31가정에 배달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한 직원은 "쌀쌀한 날씨에 힘들었지만 연탄을 건네는 마음은 따뜻해지는 하루였다"며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겨울나기가 걱정이었을 철도변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공단은 2006년부터 대전연탄은행과 연계, 지난 8년간 24만장(약 1억2천만원 상당)의 연탄을 전달하며 동구지역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으며 공단의 재개식을 시작으로 약 6개월간 대전·충청지역의 소외 이웃들을 위한 연탄나눔 행사가 진행된다.